「한국개혁신학」 40 (2013): 252-80.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타난 성찬론: 75-82문답을 중심으로

황대우
(고신대, 역사신학)

〈한글초록〉

본 논문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타난 성찬론이 신학적으로 어디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연구한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초판은 128개문답으로 작성되었으나, 2판과 3판에 하나가 더 첨가되어 지금의 129문답이 되었다. 첨가된 것은 80문답이며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성찬론의 신학적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성찬론은 개혁파 교리에 속하는 것으로 모든 개혁파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의 가르침과 거의 대부분 동일한 내용이다. 특별히 그것은 칼빈과 불링거가 작성한 취리히 일치신조의 성찬 교리와 일치한다. 하지만 성찬론과 관련하여 칼빈과 불링거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불링거 성찬 교리에서는 성령의 역할이나 그리스도와의 연합보다는 믿음의 필요와 역할이 더 강조된다. 반면에 칼빈의 성찬 교리에서는 믿음의 역할과 중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요소보다 성령의 역할과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훨씬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기독론에서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을 가르친다는 점, 성찬론에서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사이의 연합을 중시한다는 점, 에베소서 5장 30절의 인용을 인용한다는 점, 팔츠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가 '칼빈주의'라 비난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성찬론에 칼빈의 성찬론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칼빈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정당하다.

*주제어 : 요리문답, 성찬론, 하이델베르크, 칼빈, 불링거, 멜랑흐톤

투고일: 2013. 10. 13. 수정투고일: 2013. 11. 13. 게재확정일: 2013. 11. 15.

Ⅰ. 서론

카테키스무스(Catechismus)는 많은 경우 문답형식으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이미 우리에게 '요리문답' 혹은 '요리문답'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모든 카테키스무스라는 문답형식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다. "루터의 대요리문답(1529)이나 최초의 제네바교회 요리문답(1537)이 문답형식으로 작성되지 않은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칼빈은 자신의 『기독교 강요』의 '강요'(*institutio*)라는 단어에 스스로 카테키스무스라는 부제를 달았는데, 이유는 그 두 단어 모두 '교육'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칼빈은 기독교 교리를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지침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강요』 초판은 확실히 '기독교교리교육서' 혹은 '기독교신앙교육서'로 번역될 수 있다. 칼빈의 이런 사상은 『기독교 강요』 초판을 요약한 1537년의 '제네바 교리교육서'에도 반영되는데, 그 문서의 제목이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제네바교회에서 사용되는 신앙에 관한 교육[서] 및 고백[서]'(*Instruction et Confession de Foy don't on use en l'Église de Genève*). 뿐만 아니라 1542년에 작성되어 1545년에 라틴어로 출판된 두 번째 '제네바 교리교육서'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 '제네바 교회의 교리교육(서), 즉 그리스도의 교리로 소년들을 가르치기 위한 양식(=문서)'(*CATECHISMUS ECCLESIAE GENEVENSIS, hoc est, formula erudiendi pueros in doctrina Christi*)."[1]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공인본문(textus receptus)은 1536년 11월 15일에 작성된 서문을 가지고 『교회법』(*Kirchenordnung*)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2] 1월 19일에 작성된 서문을 가진 초판 이

---

[1] 황대우 편역, 『문답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13), 6-7.

[2] D. Nauta, "Die Verbreitung des Katechismus, Übersetzung in andere Sprachen, moderne Bearbeitungen," in *Handbuch zum Heidelberger Katechismus*, ed. Lothar Coenen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63), 41: "Kirchenordnung, wie es mit der chrstlichen

후 두 번 더 개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공인본문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개정된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성찬론이다. 본 논문은 공인본문이 완성되기까지 그 과정을 살피고, 또한 성찬의 핵심 내용을 다루는 75-80문답을 분석함으로써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과연 신학적으로 종교개혁기의 여러 성찬론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II.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초판, 개정판, 최종판에 나타난 성찬론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초판은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탄생 후 1563년 1월 19일 화요일에 하이델베르크에서 작성되었다."[3] 이 초판 서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 배경이 무엇이며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우리 역시 결코 사소한 결핍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문제]는 어디에서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리 선제후국의 학교에서도 교회들에서도, 기독교 교리에 대해 너무 나태하게, 부분적으로는 전혀, 부분적으로는 [내용이] 다르게, 또한 어떤 항구적이고도 확실하며 통일된 신앙교육서 없이, 각자 선호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계획 되고 교육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우리의 신학부 전체와 모든 총감독들과 뛰어난 교회사역자들의 회의와 활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Lehre, heiligen Sacramenten, unnd Ceremonien, inn des durchleuchtigsten Herrn Friderichs Pfaltzgraven bey Rhein..., gehalten wirdt. Heidelberg, Joh. Maier, 1563."

[3] J. N. Bakhuizen van den Brink, ed., *De nederlandse belijdenisgeschriften in authentieke teksten met inleiding en tekstvergelijkingen* (Amsterdam: Uitgeverij Ton Bolland, 1976), 151: "Datum Heydelberg auff Dinstag den neuntzehenden Monatstag Januarij, Nach Christi vnsers lieben Herrn vnd Seligmachers geburt, im Jar, Tausendt, Fünffhundert, drey vnd sechtzig." = A. Lang, ed., Der Heidelberger Katechismus und vier verwandte Katechismen(Leo Jud's und Micron's kleine Katechismen, sowie die zwei Vorarbeiten Ursins) mit einer historisch-theologischen Einleitung (Leipzig: A. Deichert'sche Verlagsbuchh. Nachf., 1907), 4.

요약적 교육[서] 혹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교육[서]를, 독일어와 라틴어로 작성하여 출판하도록 한다."[4] 초판이 실제로 인쇄되기 시작한 것은 2월로 보인다.[5]

모두 128문답으로 작성되었던 초판이 출간 된지 채 1개월 정도 지났을 때, 즉 1563년 3월 5일 이전에 두 번째 판이 출간되었다.[6] 초판본의 물량이 팔츠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가능성과 중요하고 민감한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 시급했을 가능성이 빠른 재판의 환경적 원인으로 추정되기도 한다.[7] 초판에 비해 개정판에서는 중요한 의미변화 없이 사소한 형식적 변화만 몇 곳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변화는 질문과 대답이 하나 더 추가 되어 모두 129문답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초판의 79문과 80문 사이에 추가된 새로운 질문은 우리에게 알려진 80문, 즉 "주님의 성찬과 교황적인 미사 사이에 있는 차이는 무엇입니까?"이다. 그리고 이 문답 뒤에는 독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 "그리스도인 독자들에게. 초판에서, 특히 폴리오 55에서와 같이, 간과된 것은 선제후의 은혜로운 명령에 따라 바로 이곳에 첨가되었습니다."[8]

---

[4] Brink, ed., *De nederlandse belijdenisgeschriften in authentieke teksten met inleiding en tekstvergelijkingen*, 150: "Also wir auch in dem nit den geringsten mangel befunden, daβ die blüenden jugend allenthalben, beides in Schulen vnd Kirchen Vnsers Churfürstenthumbs in Christlicher Lere sehr fahrlessig, vnd zum theil gar nicht, zum theil aber vngleich, vnd zu keinem bestendigen, gewissen vnd einhelligen Catechismo: sondern nach eines jeden fürnemen vnd gutdüncken angehalten vnd vnderwiesen worden… Und demnach mit rhat vnd zuthun Vnserer gantzen Theologischen Facultet allhie, auch allen Superintendenten vnd fürnemsten Kirchendienern einen Summarischen vnderricht oder Catechismum vnserer Christlichen Religion auβ dem Wort Gottes, beides in Deutscher vnd Lateinischer Sprach verfassen vnd stellen lassen." = Lang, ed., *Der Heidelberger Katechismus und vier verwandte Katechismen*, 3. 라틴어로 작성된 초판본은 존재하지 않는다.

[5] Brink, ed., *De nederlandse belijdenisgeschriften in authentieke teksten met inleiding en tekstvergelijkingen*, 30.

[6] Brink, ed., *De nederlandse belijdenisgeschriften in authentieke teksten met inleiding en tekstvergelijkingen*, 30.

[7] M. A. Gooszen, *De Heidelbergsche Catechismus: Textus receptus met toelichtende teksten* (Leiden: E. J. Brill, 1890), Inleidning 114-15.

[8] Gooszen, *De Heidelbergsche Catechismus,* 114: "An den christlichen Leser. Was im ersten truck ubersehen als fürnehmlich folio 55. Ist jetzunder ausz befelch Chürfurstlicher

두 번째 판이 출판 된지 약 1달 만에 이것의 최종 개정판이자 결정판인 제3판이 출간되었으며, 올레비아누스(Olevianus)가 칼빈과 불링거(Bullinger)에게 보낸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바로 이것의 라틴어 판과 독일어 판이라고 한다.[9] 이 개정판에서는 두 번째 판의 80문답 뒤에 삽입되었던 문구, 즉 독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문구가 제3판의 마지막 장에서 제공된다는 것과 80문의 대답이 추가 설명된 문장으로 인해 많이 길어졌다는 것 외에 2판과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10] 제3판은 소위 결정판이며, 이것이 다른 언어로 번역 출판되었다.[11] 1563년 11월 15일에 출간된 하이델베르크 교회법 속에 들어 있는 제4판과 내용이 동일하다. 오늘날 학자들은 이 제4판을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공인본문(textus receptus)으로 인정한다.[12]

다음은 제3판 80문의 대답인데, 진한 이탤릭체 부분이 제3판에 추가된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2판에서 새롭게 삽입된 80문답, 즉 "주님의 성찬과 교황적인 미사 사이에 있는 차이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의 대답이다. "성찬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것 같이 그분의 한 번의 제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에 의해, 지금 자신의 참된 몸으로는 하늘에 아버지 우편

Gnaden addiert worden."

9 Brink, ed., *De nederlandse belijdenisgeschriften in authentieke teksten met inleiding en tekstvergelijkingen*, 30.

10 Gooszen, *De Heidelbergsche Catechismus,* 115.

11 Nauta, "Die Verbreitung des Katechismus, Übersetzung in andere Sprachen, moderne Bearbeitungen," 40; Karin Y. Maag, "Early Editions and Translations of the Heidelberg Catechism," in *An Introduction to the Heidelberg Catechism: Sources, History, and Theology*, ed, Lyle D. Bierma (Grand Rapids: Baker Publishing, 2005), 105. 한글 번역은 다음 참조. 라일 비어마 외 3명 공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입문』, 신지철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221. 이 번역서는 이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입문』"으로 표기됨.

12 Gooszen, *De Heidelbergsche Catechismus,* 1-241; E. F. Karl Müller, ed., *Die Bekenntnisschriften der reformierten Kirche* (Leipzig: A. Deichertsche Verlagsbuchhandlung, 1903), 682-719; Wilhelm Niesel, ed., *Bekennt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der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 (Zürich: Evangelischer Verlag, ?1938), 150-181; Brink, ed., *De nederlandse belijdenisgeschriften in authentieke teksten met inleiding en tekstvergelijkingen*, 154-223.

에 계시고 그곳에서 경배 받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사가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위해 아직도 날마다 미사의 사제들에 의해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죄 용서를 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의 형태 아래 육적으로 임재하시고 그 안에서 경배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며 저주받을 우상숭배입니다."[13]

1530년대 후반이나 1540년대 초반에 이미 루터파 신앙을 받아들인 오토 하인리히(Otto Heinrich)는 팔츠의 선제후가 된 1556년 바로 그 해에 루터파 신앙고백을 재도입하고, 또한 요한 브렌츠(Johannes Brenz)가 1553년에 작성한 뷔르템베르크(Württemberg) 교회법에 근거한 새로운 교회법을 제정함으로써 팔츠가 루터파 지역임을 분명하게 밝혔다.[14] 그러므로 1556년부터 삼촌 오토 하인리히가 죽고 조카 프리드리히(Friedrich) 3세가 선제후로 임명된 1559년까지 선제후국 팔츠는 루터파로 분류되었던 것이 확실하다. 1559년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팔츠의 수도 하이델베르크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그곳에서는 성찬논쟁으로 시끄러웠고 논쟁이 더욱 격렬해지자, 그는 결국 논쟁의 최종 당사자들인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이며 그네시오 루터파(Gnesio-Lutheran) 수장인 틸레만 헤스후시우스(Tilemann Heshusius = Heβhusen)와 하이델베르크 성령교회(Heidelberggeistkirche)의 부제 빌헬름 클레비츠(Wilhelm Klebitz)

---

13 독일어 원문은 부록 참조. Gooszen, *De Heidelbergsche Catechismus*. 115; H. E. Vinke, ed., *Libri symbolici ecclesiae reformatae nederlandicae* (Traiecti ad Rhenum: J.G. van Terveen et fil., 1846), 356-59.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집』에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본문을 독일어와 라틴어 대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핑커(Vinke)는 독일어 본문으로 제2판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보다 먼저 신앙고백집을 편집한 니마이어(H. A. Niemeyer)가 독일어 본문으로 사용한 제3판의 추가 내용을 80문답에 단 자신의 각주에서 제공한다. 그러나 핑커가 편집한 라틴어 번역본에는 80문답의 추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므로 라틴어 역본에 사용된 독일어 원문은 확실히 제3판 혹은 공인본문인 제4판이다.

14 Charles D. Gunnoe, "The Reformation of the Palatinate and the Origins of the Heidelberg Catechism, 1500-1562," in *An Introduction to the Heidelberg Catechism: Sources, History, and Theology*, 34-35=『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입문』, 61-62.

둘 다 해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했다.[15] 이 해임 사건의 충격은 특별히 하이델베르크의 그네시오 루터파에게 치명적이었다.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의 개혁적인 조처들로 인해 그의 통치 초기부터 하이델베르크와 팔츠는 멜랑흐톤을 따르는 필립파와 루터를 추종하는 그네시오 루터파에 의해 형성된 루터파 신학의 경향을 벗어나 필립파적이면서 개혁파적인 신학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16] 이것은 분명 팔츠 선제후 프리드리히 자신의 신학적 선호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가 언제 어떻게 멜랑흐톤의 신학과 개혁파 신학을 수용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다. 프리드리히 3세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2판에 새로운 문답, 즉 80문답을 추가하도록 명령했다는 사실은 그가 어떤 신학을 추구했는지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그렇다고 80문답의 작성자가 프리드리히 3세 자신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III.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75-82문답에 나타난 성찬론

이종배찬의 문제를 다루는 75문답은 성찬의 분병과 분잔을 눈으로 보는 것은 곧 과거에 단 한 번의 사건이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확인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확실한 표"인 떡과 잔을 받아서 먹고 마시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못 박히신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내 영혼을 친히 먹이시고 마시우신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한다. 성도는 성찬을 통해 단 한 번 일어난 십자가의 과거 사건에도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의 결과인 구원의 모든 현재 유익에도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다.

---

15 이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Gunnoe, "The Reformation of the Palatinate and the Origins of the Heidelberg Catechism, 1500-1562," 37-42=『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입문』, 67-79.

16 참조. Gunnoe, "The Reformation of the Palatinate and the Origins of the Heidelberg Catechism, 1500-1562,", 44-47=『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입문』, 84-89.

76문답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성령"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몸과의 연합,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더 그분의 축사된 몸과 하나가 된다"고 가르치며, 따라서 "비록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지만 우리는 그분의 살 중의 살이요, 그분의 뼈 중의 뼈가 되는 것이요, 또한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하나의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려지듯이) 우리가 한분 성령에 의해 영원히 살고 다스려지는 것"을 강조한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거리적 간격을 메우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바로 이 성령을 통해 하늘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지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이 교리는 로마가톨릭의 화체설뿐만 아니라, 루터파 공재설도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77문답은 이러한 것의 근거인 고린도전서 11장 23b-26절과 10장 16-17절을 약속의 말씀으로 제시한다.

78문답은 로마가톨릭교회의 성찬론인 화체설을 반대하고 반박하는 내용이다. 78문답의 화체설 반박을 변호하기 위해 79문답은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가 "가시적인 표지와 보증"이며,[17] 이것을 받아서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 육신의 입으로 이 거룩한 참 표지들을 받아먹는 것처럼, 참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그분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직접 우리 각자에 의해 그 모든 것을 겪고 만족시킨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 자신의 것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화체설을 대신하는 "성령의 역사"이다. 물론 81-82문답은 누구도 믿음과 회개 없이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 성찬 참여자의 자격을 "신자"와 "회개

17 확실히 이 점에 있어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츠빙글리의 성찬론과는 거리가 멀고 칼빈의 성찬론과는 일치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5-68문답의 성례론을 츠빙글리와 칼빈의 성례론과 비교 분석한 다음 글 참조. Hermann Hesse, "Zur Sakramentslehre des Heidelberger Katechismus nach den Fragen 65-68," in *Theologische Aufsätze: Karl Barth zum 50. Geburtstag*, ed., Ernst Wolf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36), 467-89.

한 자"로 제한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80문답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초판에는 없었고 두 번째 판에 추가되었으며, 세 번째 판에서는 답변의 내용이 좀 더 보충되었다. 이렇게 추가된 80문의 대답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129개의 대답 가운데 주기도문이나 십계명 등과 같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대답을 제외하면 가장 긴 내용이다. 이것은 이 신앙고백이 작성될 당시 팔츠 지역에서 이 주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민감한 문제였는지 잘 보여준다. 81-82문답에서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논하고, 성찬에 참석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회개하지 않은 자들과 위선자들"(vnbuβfertigen vnd heuchler)은 "심판"(das gericht)을 먹고 마시는 것이며, "불신자와 불경건한 자"(vnglaubige vnd Gottlose)는 회개할 때까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천국 "열쇠의 직분"(das ampt der Schüssel), 즉 교회의 치리권으로 막아야 한다고 가르친다.[18]

80문답의 질문에서는 분명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사를 주님의 만찬과 구분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즉 로마가톨릭의 미사가 잘못된 것임을 밝히려는 의도로 보인다. 두 번째 판의 80문답은 확실히 이런 의도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증보된 세 번째 판에서 추가된 내용은 단순히 로마 가톨릭 교회의 화체설만 반대하고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루터파의 공재설까지도 거부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추가 내용을 포함한 세 번째 판 80문답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로마가톨릭의 화체설을 루터파의 공재설까지도 내포하는 가르침으로 간주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16세기 당시 가장 민감했던 성찬론을 둘러싼 논쟁들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이미 하이델베르크에서도 심각한 성찬론 논쟁이 1560년을 전후하여 벌어진 상황에서 화체설과 공재설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80문답에서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의 형태 아래

---

18 황대우 편역, 『문답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109-11.

육적으로 임재하시고 그 안에서 경배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를 로마가톨릭의 미사가 가르치는 내용으로 주님의 성찬과 대조되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상으로는 비판의 대상이 로마가톨릭이지만, 실제로는 루터파의 공재설을 겨냥한 비판이라는 사실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의 형태 아래 육적으로 임재 하신다."는 문구는 공재설의 핵심 교리이기 때문이다. 1530년 아욱스부르크 신앙고백서 10조 변경 이전 판(invariata)의 독일어 원문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님의 성찬에 관하여서 가르쳐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가 성찬에서의 떡과 포도주의 형태 아래 참으로 임재 하신다는 것이다."[19] 팔츠 선제후 프리드리히는 독일어 원문보다는 "주님의 성찬에 관하여서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참으로 임재하며 주님의 성찬에서 먹는 자들에게 나누어진다는 것이다."[20]라는 내용의 라틴어 본문을 더 선호했다고 한다.[21] 그러나 이 두 본문의 의미상 차이는 실제로 그렇게 크지 않지만, 독일어 문장이 루터파 성찬론의 핵심을 라틴어 문장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묘사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성찬 교리가 비판하는 화살이 직접적이고 외적으로는 로마가톨릭의 화체설을 향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간접적이고 내적으로는 루터파의 공재설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파괴적인 화살의 표면적 과녁은 확실히 성찬의 사효성(ex opere operato), 즉 불가시적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 가시적인 성찬요소 자체가 구원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화체설이지만, 화살의

---

19 *Die Bekenntnisschriften der evangelisch-lutherischen Kirche*, herausgegeben im Gedenkjahr der Augsburgischen Konfession 1930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2), 64: "Von dem Abendmahl des Herren wird also gelehrt, daβ wahrer Leib und Blut Christi wahrhaftiglich unter der Gestalt des Brots und Weins im Abendmahl gegenwärtig sei..."

20 *Die Bekenntnisschriften der evangelisch-lutherischen Kirche*, 64: "De coena Domini docent, quod corpus et sanguis Christi vere adsint et distribuantur vescentibus in coena Domini..."

21 Gunnoe, "The Reformation of the Palatinate and the Origins of the Heidelberg Catechism, 1500-1562," 43, n. 98=『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입문』, 81.

이면적 과녁은 화체설에 근거한 성찬의 사효성을 부정하면서도 불가시적으로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를 주장함으로써 여전히 성찬식 자체의 효력을 전제하는 공재설이라고 할 수 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 사이에 벌어진 성찬 논쟁은 그들의 기독론과 불가분의 관계였다. 그리스도의 양성, 즉 신성과 인성의 관계에 대한 초대교회의 기독론 논쟁으로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생겨났는데, 이러한 기독론 논쟁은 종교개혁기의 성찬론 논쟁을 통해 재현되었고, 이 성찬론 논쟁에서 루터파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적인 반면에 개혁파는 안디옥 학파적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성찬론과 연관된 기독론의 특징은 특히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47-48문답에 잘 나타난다. 47문답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따라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에 따라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22]라고 가르치고, 48문답에서는 "그것[=신성]이 스스로 취한 인성 밖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바로 그 [인성] 안에서도 있다."[23]라고 가르친다. 이 기독론은 확실히 로마가톨릭의 화체설적 기독론과 루터교의 공재설적 기독론과 대립적이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47-48문답에 나타난 기독론은 칼빈주의 기독론의 특징을 요약적으로 대변하는 용어 "칼빈주의가 말하는 '밖에서' "(*extra Calvinisticum*) 개념[24]과 정확히 일치한다.[25] 그렇다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성찬론은 칼

---

22 Niesel, ed., *Bekennt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der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 160: "…: Nach seiner menschlichen natur / ist er jetzunder nit auff erden:…"

23 Niesel, ed., *Bekennt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der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 160: "… daβ sie[=Gottheyt] wol ausserhalb jrer angenommen menschheyt vnd dennoch nichts desto weniger auch in derselben ist…"

24 이 개념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E. David Willis, *Calvin's Catholic Christology: The Function of the So-called Extra Calvinisticum in Calvin's Theology* (Leiden: E. J. Brill, 1966), 23-60.

25 Lyle D. Bierma, "The Sources and Theological Orientation of the Heidelberg Catechism," in *An Introduction to the Heidelberg Catechism: Sources, History, and Theology*, 80=『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입문』, 161-62.

빈적인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IV.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성찬 신학은 어디에 속하는가?

라일 비르마의 주장에 따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성찬론은 칼빈주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칼빈 한 사람에게 빚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어떤 특정한 신학적 입장에 기울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멜랑흐톤과 칼빈과 불링거의 성찬론이 복잡하게 혼재된 것으로 모든 하이델베르크 주요 개신교 진영들의 공통 기반을 대변하는 교리라는 것이다.[26] 비르마의 이러한 주장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그의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프리드리히 3세의 시도를 반영했다는 것인데, 그는 개인적으로 그의 왕국에서 멜랑흐톤파와 칼빈파와 츠빙글리파 사이의 일치를 구축하기 위해 신학적 꼬리표들을 싫어했다. 그렇다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조나 교리적 내용에서 이러한 신학적 전통들의 독특성들을 거의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만일 누군가 여전히 꼬리표 사용을 주장한다면, 가장 좋은 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란 아욱스부르크 신앙고백서 변경판(variata)에 멜랑흐톤적 개혁파 해설을 덧붙인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겠지만, 팔츠의 개신교 진영들 사이의 일치를 강조한 해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이러한 꼬리표들을 더 견고하게 붙이는 것은 부당행위이다. 왜냐하면 신앙교육서의 의도가 그러한 꼬리표들이 반영하는 분열들을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7]

---

[26] Bierma, "The Sources and Theological Orientation of the Heidelberg Catechism," 91-94=『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입문』, 187-93.

[27] Bierma, "The Sources and Theological Orientation of the Heidelberg Catechism,"

비르마의 주장은 팔츠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의 의중에 너무 지나친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 16세기 통치자들 가운데 자신의 왕국에서 종교적 분열이 발생하는 것을 방관한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자신의 통치 지역의 종교적 일치를 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대부분은, 특히 종교개혁을 수용한 통치자일수록 자신의 신학적 색깔을 애매모호하게 방치하지 않았다.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가 정말 정치적 평화만을 원했다면 주변 지역의 통치자들이 수용한 루터파의 신학을 쉽게 선택했을 것이고, 아욱스부르크 신앙고백서 비변경판(*invariata*)을 수용하는데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신앙교육서를 작성하기 위해 수고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임 선제후 오토 하인리히가 받아들인 요하네스 브렌츠의 뷔르템베르크 국가신앙교육서(*Landescatechismus*)를 그대로 허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비르마의 주장대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전체적으로는 16세기 종교개혁 진영들의 다양한 신학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신학의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 무리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신앙교육서 전체에 칼빈주의적 교리의 특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다.[28] 특히 기독론과 성찬론의 신학적 색깔은 확실히 칼빈주의적이다. 이 두 신학 주제는 16세기 종교개혁 기에 가장 민감하게 논쟁된 것이며 이것으로 루터파와 개혁파는 확연하게 구분된다.

1520년대에 벌어진 종교개혁자들 사이의 1차 성찬론 논쟁에 수많은 1세대 종교개혁가들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쟁은 마치 루터와 츠빙글리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난 것처럼 회자되는데, 그 이유는 그 두 종교개혁자가 논쟁 양편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다.[29] 2차 성찬론 논쟁의 도화선이 1549년 칼빈과 불링거 사이에

102=『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입문』, 187-93.

[28] 참고. Lang, ed., *Der Heidelberger Katechismus und vier verwandte Katechismen*, CI-CIV.

합의 작성된 "취리히 일치신조"(Consensus Tigurinus) 이후 제네바 개혁자 칼빈과 루터파 신학자 베스트팔(Westphal) 사이의 논쟁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면[30] 루터파와 대립적이었던 개혁파 성찬론의 대표 주자로 칼빈을 꼽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성찬 임재 방법과 관련하여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성찬론은 속성의 교류(*communicatio idiomatum*)를 인정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몸의 편재성(*ubiquitas*)을 근거로 육체적 임재를 주장한 루터의 공재설에도 속하지 않고, 속성의 교류를 부정하고 편재적인 그리스도의 신성과 한 장소에 제한적인 그리스도의 인성을 극단적으로 구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에 대한 '신앙적 명상'(*contemplatio fidei*)을 통한 상상적 임재를 주장한 츠빙글리의 상징설에도 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속성의 교류를 인정하면서도 양성을 구분하는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에 근거하여 비록 그리스도의 몸이 공간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신성의 초월성을 근거로 성령을 통해 성찬에 실제로 임재하신다고 주장한 칼빈의 성찬론, 즉 성령적 임재(*praesentia spiritualis*) 사상과 일맥상통한다.

문제는 이러한 영적 임재설을 제네바의 개혁자뿐만 아니라 취리히 일치신조의 당사자인 불링거[31]도 역시 주장한다는 것이다. 성찬

---

29 종교개혁기의 성찬논쟁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Helmut Gollwitzer, *Coena Domini: Die altlutherische Abendmahlslehre in ihrer Auseinandersetzung mit dem Calvinismus dargestellt an der lutherischen Frühorthodoxie* (München: Chr. Kaiser Verlag, 1537); Ernst Bizer, *Studien zur Geschichte des Abendmahlsstreits im 16. Jahrhundert*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401;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23); Hans Grass, Die Abendmahlslehre bei Luther und Calvin (Gütersloh: C. Bertelsmann Verlag, 1954); Thomas Kaufmann, Die Abendmahlstheologie der Straβburger Reformatoren bis 1528 (Tübingen: J.C.B. Mohr, 1992).

30 참조. Bizer, *Studien zur Geschichte des Abendmahlsstreits im 16. Jahrhundert*, 234-99. 비처는 자신의 책 마지막 장(300-362)을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루터의 시각으로 분석했는데, 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루터의 편재설(ubiquitätslehre)도 이것을 반대한 개혁파의 입장도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에 나타난 성찬론의 실제적인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성찬에 관한 문답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에 있는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맞을지 모르나, 내용적으로는 확실히 틀렸다. 왜냐하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성찬론은 이미 그리스도의 실제 몸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관계를 다루는 47-48문답과 80문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에 관하여 칼빈과 불링거 사이에는 어느 정도 강조점의 차이는 있다. 칼빈의 영적 임재설에서는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사이의 연합과 교제 개념이 강한 반면에, 불링거의 영적 임재설에서는 그와 같은 연합과 교제의 개념이 약화되는 반면에 은혜의 통로로서의 믿음의 역할이 강조된다. 성찬에서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일을 칼빈은 특별한 은혜로 간주하는 반면에, 불링거는 일반적인 은혜와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32]

초기에 불링거는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별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는 '영적 먹음'을 부정했다. "요약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믿으시오, 그러면 [이미] 먹은 것입니다.' 육체의 먹음을 추구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이곳에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마 26:26]라고 [하신 말씀]을 영적인 먹

---

31 불링거의 영적 임재설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Heinrich Bullinger, *Christliches Glaubensleben: Summa christenlicher Religion 1556* (Basel & Giessen: Limache Verlag, 1995. Originalausgabe 1556/1558 Zürich. Übersetzung Siegfried Müller), 159-76. 특히 170-75. 173-74: "In diesem seinem letzten Nachtmahl, wo er sagt: "Das ist mein Leib; das ist mein Blut," gibt er den Seinen noch viel weitgehender einen genauen Bescheid, er werde nicht mehr leiblich auf Erden sein. er wolle aber durch seinen Geist bis an das Ende[174] bei seiner Kirche sein und durch diesen alles, wirklich alles zur Verfügung stellen, wessen sie bedürfe… So ist der ganze Hauptpunkt ganzen christlichen Lehre und unseres Glaubenslebens dieses: Durch den Leib Christi, der hingegeben ist, und das Blut Christi, das vergossen ist, haben wir Vergebung der Sünden erlangt und die Erbschaft des ewigen Lebens, das wir einzig durch das Vertrauen annehmen; Christus lebt durch das Vertrauen und durch seinen Geist in seinen Glaübigen, und doch wohnt er leiblich in den Himmeln und ist nicht mehr leiblich auf Erden…; anders gesagt, er sprengt uns geistlich sein Blut an, wir aber empfangen das und nehmen es an, geistlich, durch den Glauben-nein, sondern es sei ebenfalls notwendig, dass Christus täglich und leiblich, also fleischlich in jedem von uns wohne, uns sogar wesenhaft sein Blut anspritze, das wir nicht nur geistlich durch den Glauben, sondern leiblich mit dem Mund empfangen müssten, damit sein Fleisch auch leiblich in uns sei." 여기서 불링거의 강조점은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를 거듭 강력하게 부정하는 것에 있다. 또한 믿음을 통해 신자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일반적 임재와 성찬에서 신자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특별한 임재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32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믿는 자들이 육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써 영적으로 받는 것이다… 주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니, 그러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일은 주의 성찬을 떠나서도 일어난다. 언제나 어디서나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있게 된다." 이 내용은 제2 스위스 신앙고백에 나오는 것이며, 여기 한글 번역은 다음 책에서 인용됨. 김영재 편저, 『기독교 신앙고백』 (수원: 영음사, 2011), 579. 원문은 다음 책 참조. Müller, ed., *Die Bekenntnisschriften der reformierten Kirche*, 211.

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례의 외적인 먹음에 관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찢기셨다고 믿는 자가 육체를 먹기 때문이다. 참으로 감사한 후에 그분의 몸의 표징을 형제들과 함께 먹는 자가 성례를 먹는 것이다."[33] 여기서 불링거는 그리스도의 성찬 제정 말씀을 "영적 먹음"(*manducatio spiritualis*)이 아닌, "성례의 외적 먹음"(*externus esus sacramenti*)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믿는 것(*credere*)을 먹는 것(*edere*)과 동일시한 츠빙글리의 성찬론을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불링거의 초기 성찬론은 취리히 일치신조를 위한 칼빈과의 대화를 통해 약간 수정된다. 그 수정된 내용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먹는다는 영적 먹음을 인정한 것인데, 이것은 1549년에 작성된 취리히 일치신조에 반영되었다.[34]

불링거의 성찬론을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작성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이다. 이 신앙고백은 개혁교회의 교리 해설서를 작성해달라는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의 요청을 받은 불링거가 자신이 개인적으로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던 것을 그에게 보내었고, 이것을 받은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1566년에 출판함으로써 탄생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불링거는 "먹음은 한 종류가 아니다"(*Manducatio non est unius generis*)라고 하면서 "육적 먹음"(*manducatio corporalis*) 즉 "주님을 육체적으로 먹는 것"(*corporaliter manducare dominum*)과 "그리스도 몸의 영적 먹음"(*spiritualis manducatio corporis Christi*) 즉 "주

---

[33] Hans-Georg vom Berg & Bernhard Schneider & Endre Zsindely, eds., *Heinrich Bullinger Werke* Dritte Abteilung *Theologische Schriften* Band 2: *Unveröffentlichte Werke der Kappeler Zeit Theologica* (Zürich: TVZ, 1991), 103 (*De institutione eucharistiae*, 1525): "Breviter: 《Crede》, ait Augustinus, 《et manducasti》. Iam vero Christus hoc loci: 《Edite, hoc est corpus meum》 [Mt 26, 26] non loquitur de manducatione spirituali, sed de externo esu sacramenti, qui manducationem carnis sequitur. Nam qui probat se et credit Christum pro se caesum, is manducat carnem; qui vero gratias agit et deinde etiam corporis illius signum edit cum fratribus, is sacramentum edit."

[34] 취리히 일치신조 본문은 다음 참조. Müller, ed., *Die Bekenntnisschriften der reformierten Kirche*, 159-63. 하지만 이 취리히 일치신조의 내용 대부분은 칼빈보다는 오히려 불링거의 성찬론을 반영하고 있다.

님을 영적으로 먹는 것"(*spiritualiter manducare dominum*)으로 구분하는데,[35] 전자의 방법이 아닌 후자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36]

"밖으로 빵이 사역자에 의해 제공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서 너희 가운데 나누라. 너희 모두는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다.' 그러면 신자들은 주의 사역자에 의해 주어진 것을 받아서 주의 빵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신다. 바로 그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주의 살과 피를 내적으로 인식하고 영원히 이것들을 먹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영원토록 참된 음식과 음료이기 때문이다."[37] 이것을 불링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영적으로 먹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의 살을 먹음과 피를 마심은, 마치 이것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구원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 영적인 먹음과 마심은 주의 만찬 밖에서도 일어나는데,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일어난다]. 아마도 그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말]과 연결된다. '당신은 이와 위장을 위해 무엇을 준비합니까? 믿으시오, 그러면 [이미] 먹은 것입니다."[38] 여기서 불링거가 주장하는 영적인 먹음과 마심의 일반화는 칼

---

35 게리쉬는 이것을 근거로 불링거의 성찬론을 "상징적 평행주의"라 부른다. 참고. B. A. Gerrish, *The Old Protestantism and the New: Essays on the Reformation Heritage* (Edinburgh: T.&T. Clark, 1982), 124: "Bullinger seems to be thinking in terms of a symbolic parallelism: outwardly we eat the bread, inwardly *at the same time* we also feed upon Christ's body." 이 책에서 게리쉬는 츠빙글리의 성찬론을 "상징적 기념주의"(symbolic memorialism)으로, 칼빈의 성찬론을 "상징적 도구주의"(symbolic instrumentalism)으로 각각 규정한다.

36 Müller, ed., *Die Bekenntnisschriften der reformierten Kirche*, 210-11. 칼 뮬러가 여기서 제시하는 『제2 스위스 신앙고백』의 라틴어 본문은 1562년도 판이다.

37 Müller, ed., *Die Bekenntnisschriften der reformierten Kirche*, 210: "Foris offertur a ministro panis, et audiuntur voces Domini, Accipite, edite, Hoc est corpus meum, Accipite et dividite inter vos, Bibite ex hoc omnes, Hic est sanguis meus. Ergo accipiunt fideles quod datus a ministro domini, et edunt panem domini, ac bibunt de poculo domini: intus interim opera Christi per spiritum sanctum, percipiunt etiam carnem sanguinem domini, et pascuntur his in vitam aeternam. Etenim caro et sanguis Christi verus cibus et potus est ad vitam aeternam:..."

38 Müller, ed., *Die Bekenntnisschriften der reformierten Kirche*, 211: "Et hic esus carnis, et potus sanguinis Domini, ita est mecessarius ad salutem, ut sine ipso nullus servari possit. Fit autem hic esus et potus spiritualis, etiam extra Domini coenam, et quoties, aut

빈의 성찬 교리에서 찾아보기 힘든 낯선 개념이다. 아우구스티누스 말을 인용한 것에 관한 한 불링거의 성찬론은 변함없이 동일하다.

비록 그가 성찬에 대한 자신의 후기 저술들에서 초기 작품에 비해 성령의 역할을 자주 언급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불링거 성찬론의 강조점은 시종일관 성령보다는 믿음에 있는데, 이것은 츠빙글리 성찬론의 강력한 유산으로써 개혁파 성찬론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반면에 칼빈 역시 자신의 성찬론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언급하지만 제네바 개혁자는 믿음보다는 오히려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과 교제를 훨씬 더 강조한다. 츠빙글리와 마찬가지로 불링거의 성찬론에서 중심이 되는 성경본문은 요한복음 6장이다. 이것은 칼빈을 포함하여 모든 개혁파 종교개혁가들과 모든 개혁파 신앙고백서, 신앙교육서의 공통된 특징이다. 하지만 불링거는 칼빈과 달리, 자신의 성찬론에서 성령을 통해 내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사이의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데, 이런 이유 때문인지 그의 성찬론에서는 에베소서 4-5장의 교회론적인 본문이 인용되지 않는다. 반면에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76문답에서는 특이하게도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분의 살 중의 살이요, 그분의 뼈 중의 뼈가 되는 것이다"를 인용되는데, 이 본문은 칼빈의 성찬론에서도 역시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 사이의 연합과 교제를 설명하기 위해 중요한 본문으로 인용된다.[39]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판과 4판 사이의 기간인 1563년 7월 23일에 칼빈은 자신의 예레미야 주석을 팔츠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3

---

ubicunque homo in Christum crediderit. Quo fortassis illud Augustini pertinet, Quid paras dentem et ventrem? crede, et manducasti."

39 칼빈, 『기독교 강요』 4.17.9. (= *OS* 5, 351 = *CO* 1, 1009). 여기에 인용된 에베소서 5장 30절은 창세기 2장 23절을 응용한 내용인데, 신약헬라어성경 쿠르트 알란트(Kurt Aland)판에서 생략되었기 때문에 한글 번역 성경에도 역시 생략되었다. 하지만 라틴어 번역 성경 불가타(Vulgata)와 16세기 제네바에서 편집된 스테파누스(Stephanus) 성경에는 들어 있으며, "우리는 그의 몸이다"라는 본문 바로 뒤에 있는 내용이다.

세에게 헌정했는데, 이 헌정 서신에서 성찬 교리를 상당히 길게 다루고 있다.[40] 여기서 칼빈은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가 공개적으로 팔츠 지역에 수용한 성찬론을 "그리스도의 성찬에 관한 순수하고 정통적인 교리"(*sanam et orthodoxam de sacra Christi coena doctrinam*)라고 칭찬하면서,[41] 동시에 선제후의 성찬론에 "칼빈주의"(Calvinismus)[42]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그를 비난하는 대적자들의 어리석음과 야비함을 성토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칼빈주의를 제시함으로써 일종의 불명예 표식으로 당신의 명성을 더럽히려고 시도하지만, 그들은 헛된 어리석음과 엄청난 치욕으로 점철된 자신들의 악행 외에는 아무 것도 드러내지 못합니다."[43] "가장 고명하신 군주시여, 당신의 명성을 공격하기에는 칼빈주의라는 이름보다 더 끔찍한 비난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그와 같은 혐오의 가혹함이 어디에서 기인된 것인지는 분명합니다."[44]

이 헌정 서신에서도 칼빈은 자신의 특징적인 기독론적 성찬론을 대변하는 개념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에 대한 길고도 상세한 설명도 빼놓지 않고 제시하는데,.[45] 여기서 "속성의 교류"(*proprietatum communicatio*)를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혼합으로 오해하여 그리스도의 육체적 편재를 주장하는 베스트팔(Westphal)과 같은 루터파

---

40 *CO* 20, 72-79.

41 *CO* 20, 72.

42 칼빈은 불링거와 더불어 취리히 일치신조에 합의한 해인 1549년에 이미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용어는 성찬론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CO* 12, 730 (칼빈이 불링거에게 보낸 1549년 7월 6일자 편지). 16세기에 사용된 Caluiniane(칼빈의 방법), Caluinianismus(칼빈주의), Caluianianus(칼빈의, 칼빈적인, 칼빈파의, 칼빈주의자), Caluinicus(칼빈파의, 칼빈주의자), Caluinismus(칼빈주의), caluiniso(=caluinizo. 칼빈파로 나타나다, 칼빈적으로 되다), Caluinista(칼빈주의자), Caluinisticus(칼빈적인, 칼빈주의적인) 등과 같은 용어들의 출처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René Hoven, *Lexique de la Prose Latine de la Renaissance* (Leiden: E.J. Brill, 1994), 48.

43 *CO* 20, 73: "Dum ergo Calvinismum obiiciendo aliqua infamiae nota tuam Celsitudinem aspergere conantur, nihil aliud quam suam pravitatem cum stultitia frustra et magno suo cum dedecore produnt."

44 *CO* 20, 76: "Nullum atrocius reperiunt maledictum, quo tuam Celsitudinem incessant, illustrissime Princeps, quam nomen Calvinismi. Unde vero tanta odii in me acerbitas, non obscura est coniectura."

45 *CO* 20, 73-75.

신학자들의 오류를 반박하면서 그 용어를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분의 육체 안에 존재하지만 자신의 영의 능력으로 육체 밖에서도 존재한다는 개념, 즉 그분의 육체로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신성의 무한한 능력으로는 무소부재 하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강변한다.[46] 자신의 이런 주장을 위해 제네바 개혁자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나님의 우편을 일종의 비유로 간주하면서 그 우편을 "모든 곳에 펼쳐져 있으므로 결코 장소들의 어떤 공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ubique diffusa nullo spatio locorum capitur*) 곳, "측량할 수 없이 무한한"(*immensus*) 곳, "그리스도의 왕국"(*Christi imperium*)으로 해석한다.[47]

V. 결론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성찬론은 로마교의 화체설을 배격할 뿐만 아니라, 루터파의 공재설도 거부한다. 반면에 그것은 아욱스부르

---

[46] *CO* 20, 73: "Christi carne et sanguine vere nos in sacra coena pasci, non secus ac panis et vinum corporum sunt alimenta, ingenue fatemur. Si qaueritur explicatio magis dilucida, carnis et sanguinis Christi substantia spiritualis nobis vita est, eaque sub panis et vini symbolis nobis communicantur: quia Christus mysterium coenae instituens neque fallaciter quidquam promisit, neque lusit inanibus spectris, sed quod re ipsa dabat externis signis repraesentavit. Nunc de modo communicationis restat quaestio. Hinc vero nascitur conflictus, quod subscribere eorum imaginationi recusamus qui loci praesentiam exigunt. Dicimus, quamvis in coelo sit Christus, arcana tamen et imcomprehensibili spiritus eius virtute ad nos penetrare gratiam illam, ut caro eius nobis sit vivifica, nos autem simus caro ex carne eius et ossa ex ossibus eius (Eph. 5, 30)." / 74: "Quum patribus loquendi figuram ad simplices docendos accommodare propositum fuerit, vel perperam vel parum verecunde alio trahitur ut proprietatum communicatio realis sit mixtura, utriusque naturae." / 75: "Ipse, inquam Deus et homo ubique est imperio virtuteque incomprehensibili et infinita gloria: sicuti claris effectis eius praesentiam experiuntur fideles. Neque vero abs re praedicat Paulus (Eph. 3, 17) eum in nobis habitare. Verum quod de immensitate virtutis dicitur, quae in donis spiritualibus, invicto auxilio totaque nostra salute apparet, ad essentiam carnis torquere minime consentaneum est."

[47] *CO* 20, 74: "Atqui sedet Christus ad patris dexteram, quae ubique diffusa nullo spatio locorum capitur. Fateor sane, et immensam esse Dei dexteram et quacunque patet simul extendi Christi imperium, quod sessionis voce scriptura metaphorice significat."

크 신앙고백의 비변경판인 초판의 라틴어 본문과 이후 그것의 새로운 변경판에 나타난 성찬론과 심각하게 상충되거나 대립되는 요소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초기 멜랑흐톤의 성찬론이 칼빈을 만난 1538년 이후로 칼빈의 영향으로 수정되는데, 이런 점에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는 멜랑흐톤의 후기 성찬론과 유사하다. 따라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성찬 교리와 관련하여 멜랑흐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성찬론은 전형적인 개혁파 교리에 속하는 것으로 모든 개혁파 신앙고백서와 신앙교육서의 가르침과 거의 대부분 동일한 내용이다. 특별히 그것은 취리히 일치신조의 성찬 교리와 일치하기 때문에 칼빈과 불링거에게 받은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칼빈과 불링거는 취리히 일치신조에 합의했으나, 두 종교개혁가의 성찬론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성찬 교리는 둘 가운데 누구의 것과 더 가까울까? 불링거 성찬 교리에서는 성령의 역할이나 그리스도와의 연합보다는 믿음의 필요와 역할이 더 강조되는 반면에 칼빈의 성찬 교리에서는 믿음의 역할과 중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요소보다 성령의 역할과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훨씬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기독론에서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을 가르친다는 점, 성찬론에서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사이의 연합을 중시한다는 점, 에베소서 5장 30절의 인용을 인용한다는 점, 팔츠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가 '칼빈주의'라 비난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의 성찬론에 칼빈의 성찬론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칼빈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정당하다.

* 부 록

	독일어 원문[48]	한글 번역[49]
75	Frag. Wie wirstu im heiligen Abendmal erinnert vnd versichert / daβ du an dem einigen opffer Christi am Creutz / vnd allen seinen gütern gemeinschafft habest?	문. 당신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그분의 모든 선행[=유익]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Antwort. Also / daβ Christus mir vnnd allen gläubigen von diesem gebrochnen brod zu essen / vnnd von disem Kelch zutrincken befohlen hat zu seinem gedechtniβ / vnnd darbey verheissen Erstlich daβ sein leib so gewiβ für mich am Creutz geopffert vnd gebrochen / vnnd sein blut für mich vergossen sey / so gewiβ ich mit augen sehe / daβ das brod des HERRN mir gebrochen / vnd der Kelch mir mitgetheilet wird: Vnd zum andern / daβ er selbst meine seel mit seinem gecreutzigten Leib vnnd vergossnen Blut / so gewiβ zum ewigen leben speise vnd trencke / als ich auβ der hand des Dieners empfange / vnnd leiblich niesse das brod vnnd den Kelch des HERRN / welche mir als gewisse warzeichen des leibs vnd bluts Christi gegeben werden.	답.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기념하도록 나와 모든 성도들에게 이 떤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떡이 나에게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와 같이 확실하게, 그분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분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나에게 제공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육적으로 즐기는 것처럼 그와 같이 확실하게, [나의] 영생을 위해 그분은 자신의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내 영혼을 친히 먹이시고 마시우신다는 것입니다.
76	Frag. Was heist den gecreutzigten leib Christi essen / vnnd sein vergossen Blut trincken?	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분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Antwort. Es heist nit allein mit glaubigem hertzen das gantze leiden vnnd sterben Christi annemmen / vnd dardurch vergebung der sünden vnd ewiges leben bekommen: Sonder auch darneben durch den heiligen Geist / der zu gleich in Christo vnnd in vns wohnet / also mit seinem gebenedeyten leib je mehr vnnd mehr vereiniget werden: daβ wir / ob gleich er	답.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요, 이로써 죄 용서를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도 거하시고 동시에 우리 안에도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더 그분의 축사된 몸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록 그분은 하

	im Himmel / vnnd wir auff Erden sind: dennoch fleisch von seinem fleisch / vnnd bein von seinen beinen sind / vnnd von einem geist (wie die glieder vnsers leibs von einer seelen) ewig leben vnnd regieret werden.	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지만 우리는 그분의 살 중의 살이요, 그분의 뼈 중의 뼈가 되는 것이요, 또한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하나의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려지]듯이) 우리가 한분 성령에 의해 영원히 살고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77	Frag. Wo hat Christus verheissen / daß er die gläubigen so gewiß also mit seinem leib vnd blut speise vnd trencke / als sie von diesem gebrochnen brod essen / vnd von diesem Kelch trincken?	문. 신자들이 이 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그와 같이 확실하게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몸과 피로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우신다는 것을 어디에서 약속하셨습니까?
	Antwort. In der einsatzung des Abendmals / welche also lautet: Vnser HERR Jesus / in der nacht da er verrahten ward / nam er das brodt / dancket vnd brachs vnnd sprach / Nemet / esset / das ist mein leib / der für euch gebrochen wirdt / Solchs thut zu meiner gedechtnuß. Desselben gleichen auch den Kelch / nach dem Abendtmal / vnnd sprach: Dieser Kelch ist das newe Testament in meinem blut / solches thut / so offt jrs trincket / zu meiner gedechtnuß: Denn so offt jr von diesem / brod esset / vnnd von diesem Kelch trincket / solt jr des Herren tod verkündigen / biß daß er kompt. Vnd diese verheißung wirdt auch widerholet durch S. Paulum / da er spricht: Der Kelch der dancksagung / damit wir dancksagen / ist er nit die gemeinschafft des bluts Christi? Das brodt das wir brechen / ist das nicht die gemeinschafft des leibs Christi? Denn ein brod ists / so seind wir viel ein leib / dieweil wir alle eines brots theilhafftig seind.	답. [그것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성찬 제정에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3b-26) 그리고 또한 이 약속은 성 바울을 통해서도 반복되는데, 왜냐하면 그가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감사하는] 바 축복[=감사]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전 10:16-17)
78	Frag. Wirdt denn auß brod vnd wein der wesentlich Leib vnnd Blut Christi?	문. 떡과 포도주로부터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몸과 피가 됩니까?[=떡과 포도주에 의

		해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Antwort. Nein: sonder wie das wasser in dem Tauff / nicht in das blut Christi verwandlet / oder die abwaschung der sünden selbst wird / deren es allein ein Göttlich warzeichen vnd versicherung ist: also wirdt auch das heilig brodt im Abendmal nit der leib Christi selbst / wiewol es nach art vnd brauch der Sacramenten / der leib Christi genennet wird.	답.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된다거나 죄 씻음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그리스도의 피와 죄 씻음]에 대한 하나의 신적인 표와 인이듯이 성찬의 떡 역시, 비록 그것이 성례의 성질과 용례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어질지라도,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79	Frag. Warumb nennet denn Christus das brod seinen leib / vnd den Kelch sein blut / oder das newe Testanemt in seinem blut / vnd S. Paulus / die gemeinschafft des leibs vnnd bluts Jesu Christi?	문.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떡을 자신의 몸이라 하시고, 잔을 자신의 피, 또는 자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부르십니까? 그리고 왜 바울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교제라고 [부릅니까]?
	Antwort. Christus redet also nit one grosse vrsach: Nemlich / daβ er vns nicht allein damit wil lehren / daβ / gleich wie brod vnnd wein das zeitliche leben erhalten / also sey auch sein gecreutzigter leib vnd vergossen blut / die ware speiβ vnnd tranck vnserer seelen / zum ewigen leben: sonder viel mehr daβ er vns durch diβ sichtbare zeichen vnd pfand wil versichern / daβ wir so warhafftig seines waren leibs vnd bluts durch würckung des heiligen Geists theilhafftig werden / als wir diese heilige warzeichen / mit dem leiblichen mund zu seiner gedechtnuβ empfangen: vnd daβ all sein leiden vnnd gehorsam so gewiβ vnser eigen sey / als hetten wir selbst in vnser eigen person alles gelitten vnnd genüg gethan.	답.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그분께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신 것은,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유한한 생명을 유지하듯이,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가 영생을 위한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또한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가시적인 표지와 보증으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확고하게 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 육신의 입으로 이 거룩한 참 표지들을[=떡과 포도주를] 받아먹는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그분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직접 우리 각자에 의해 그 모든 것을 겪고 만족시킨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 자신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80	Frag. Was ist für ein vnderscheid zwischen dem	문. 주님의 성찬과 교황적인 미사 사이에

	Abendtmal des HERREN / vnnd der Bäpstlichen Meβ?	있는 차이는 무엇입니까?
	Antwort. Das Abendmahl bezeuget vns / daβ wir volkommene vergebung aller vnser sünden haben / durch das einige opffer Jesu Christi / so er selbst ein mal am Creutz vollbracht hat / Vnnd daβ wir durch den heiligen Geist Christo werden eingeleibt / der jetzund mit seinem waren leib im Himmel zur Rechten des Vatters ist / vnd daselbst wil angebettet werden. Die Meβ aber lehret / daβ die lebendigen vnd die todten nicht durch das leiden Christi vergebung der sünden haben / es sey denn daβ Christus noch täglich für sie von den Meβpriestern geopffert werde. Vnd das Christus leiblich vnder der gestalt brots vnnd weins sey / vnd derhalben darinn soll angebettet werden : Vnd ist also die Meβ im grund nichts anderst / denn ein verleugnung des einigen opffers vnd leidens Jesu Christi / vnd ein vermaledeyte Abgötterey.	답. 성찬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것 같이 그분의 한 번의 제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에 의해, 지금 자신의 참된 몸으로는 하늘에 아버지 우편에 계시고 그곳에서 경배 받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사가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위해 아직도 날마다 미사의 사제들에 의해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죄 용서를 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의 형태 아래 육적으로 임재하시고 그 안에서 경배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며 저주받을 우상숭배입니다.

48 Niesel, ed., *Bekenntnisschriften und Kirchenordnungen der nach Gottes Wort reformierten Kirche*, 166-169. = Lang, ed., *Der Heidelberger Katechismus und vier verwandte Katechismen*, 30-33. 참고. Brink, ed., *De nederlandse belijdenisgeschriften in authentieke teksten met inleiding en tekstvergelijkingen*, 188-94; Gooszen, *De Heidelbergsche Catechismus. Textus receptus met toelichtende teksten*, 145-60. 바크하위즌 판 덴 브링크 편집판은 독일어와 라틴어 및 네덜란드 번역본이 대조되어 있고, 호우즌의 책에는 독일어 원문과 16세기에 출판된 여러 신앙교육서들의 본문이 각 문답마다 참고 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49 황대우 편역, 『문답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94-107. 본 논문에서 제공되는 한글 번역이 필자의 번역서의 한글 번역과 사소한 부분에서 약간 다른 이유는 원문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하여 수정했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Doctrine of the Lord's Supper in the Heidelberg Catechism: Concentrated on the Questions and Answers 77-82.

Dae-Woo Hwang
(Kosin University, Church History)

This article deals with the theology of the Heidelberg Catechism, especially the doctrine of the Lord's Supper. It is sure that the doctrine of the Lord's Supper in Heidelberg Catechism belongs to the Reformed theology and is in substantial accord with the other Reformed confessions and catechisms. Is it justified for the doctrine of the Lord's Supper in Heidelberg Catechism to be classified as the Reformed theology, especially as the sacramental theology of Calvin?

In connection with the sacramental theology, the Heidelberg Catechism is best substantially the same with the Tigurinus Consensus (1549) drafted by Calvin in Geneva and Bullinger in Zurich. But the doctrine of two Reformers is not uniformed in a concrete explanation and stress. Acknowledging the role of the Holy Spririt in the Lord's Supper, Bullinger accentuates the faith to be necessary for eating the bread. Unlike him, Calvin lay most stress on the union with Christ(unio cum Christo)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his own Spirit, though he highly regards the role of faith for receiving bread and wine.

In this article, I emphasized that it is right to attach a Calvinistic label to the doctrine of the Lord's Supper in Heidelberg Catechism. My argument is based on some points, namely Calvin's opinion "extra

Calvinisticum" in christology of the Heidelberg Catechism, emphasis on the union with Christ, quotation of Eph. 5:30, and criticism of Friedrich III's Calvinist from the Lutheran theologians and politicians.

Key words : Catechism, doctrine of the Lord's Supper, Heidelberg, Calvin, Bullinger, Melachthon

〈참고 문헌〉

황대우 편역. 『문답식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13.

Bierma, Lyle D. (Ed.) An *Introduction to the Heidelberg Catechism: Sources, History, and Theology*. 신지철 역.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입문』.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Berg, Hans-Georg vom, Schneider, Bernhard, & Zsindely, Endre. (Eds.) *Heinrich Bullinger Werke Dritte Abteilung Theologische Schriften Band 2: Unveröffentlichte Werke der Kappeler Zeit Theologica*. Zürich: TVZ, 1991.

Bierma, Lyle D. "The Sources and Theological Orientation of the Heidelberg Catechism." In *An Introduction to the Heidelberg Catechism: Sources, History, and Theology*. (Ed.) Lyle D. Bierma. Grand Rapids: Baker Publishing, 2005: 75-102.

Bierma, Lyle D., (Ed.) *An Introduction to the Heidelberg Catechism: Sources, History, and Theology*. Grand Rapids: Baker Publishing, 2005.

Bizer, Ernst. *Studien zur Geschichte des Abendmahlsstreits im 16. Jahrhundert*. 1st ed.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40; 3rd ed.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2.

Brink, J. N. Bakhuizen van den. (Ed.) *De nederlandse belijdenisgeschriften in authentieke teksten met inleiding en tekstvergelijkingen*. Amsterdam: Uitgeverij Ton Bolland, 1976.

Bullinger, Heinrich. *Christliches Glaubensleben: Summa christenlicher Religion 1556*. Trans. Siegfried Müller. Basel & Giessen: Limache Verlag, 1995. Originalausgabe 1556/1558 Zürich.

Coenen, Lothar. (Ed.) *Handbuch zum Heidelberger Katechismus*.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63.

Die Bekenntnisschriften der evangelisch-lutherischen Kirch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2.

Gerrish, B. A. *The Old Protestantism and the New: Essays on the Reformation Heritage*. Edinburgh: T.&T. Clark, 1982.

Gollwitzer, Helmut. *Coena Domini: Die altlutherische Abendmahlslehre in ihrer Auseinandersetzung mit dem Calvinismus dargestellt an der lutherischen Frühorthodoxie*. München: Chr. Kaiser Verlag, ?1537.

Gooszen, M. A. *De Heidelbergsche Catechismus. Textus receptus met toelichtende teksten*. Leiden: E. J. Brill, 1890.

Grass, Hans. *Die Abendmahlslehre bei Luther und Calvin*. Gütersloh: C. Bertelsmann Verlag, 1954.

Gunnoe, Charles D. "The Reformation of the Palatinate and the Origins of the Heidelberg Catechism, 1500-1562." In *An Introduction to the Heidelberg Catechism: Sources, History, and Theology*. (Ed.) Lyle D. Bierma. Grand Rapids: Baker Publishing, 2005:15-47.

Hesse, Hermann. "Zur Sakramentslehre des Heidelberger Katechismus nach den Fragen 65-68," In *Theologische Aufsätze: Karl Barth zum 50*. Geburtstag. (Ed.) Ernst Wolf.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36: 467-89.

Hoven, René. *Lexique de la Prose Latine de la Renaissance*. Leiden: E. J. Brill, 1994.

Kaufmann, Thomas. *Die Abendmahlstheologie der Straβburger Reformatoren bis 1528*. Tübingen: J. C. B. Mohr, 1992.

Lang, A. (Ed.) *Der Heidelberger Katechismus und vier verwandte Katechismen(Leo Jud's und Micron's kleine Katechismen, sowie die zwei Vorarbeiten Ursins) mit einer historisch-theologischen Einleitung*. Leipzig: A. Deichert'sche Verlagsbuchh. Nachf., 1907.

Nauta, D[ouwe]. "Die Verbreitung des Katechismus, Übersetzung in andere Sprachen, moderne Bearbeitungen." In *Handbuch zum Heidelberger Katechismus*. (Ed.) Lothar Coenen(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63: 39-62.

Vinke, H. E. (Ed.) *Libri symbolici ecclesiae reformatae nederlandicae*. Traiecti ad Rhenum: J.G. van Terveen et fil., 1846.

Willis, E. David. *Calvin's Catholic Christology: The Function of the So-called Extra Calvinisticum in Calvin's Theology*. Leiden: E. J. Brill, 1966.

*약어표

CO = Calvini Opera = G. Baum, G. e.a. (Eds.) *Ioa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I-LIX*. Braunschweig: Schwetschke et Filium, 1863-1990. = Corpus Reformatum 29-87.

OS = Calvini Selecta = Barth, P. & Niesel, G. (Eds.) *Joannis Calvini Opera Selecta* I-V. München: Chr. Kaiser, 1926-1936.